

# 현대자본주의《경쟁적엘리트민주주의》론의 반동성

한 철 주

오늘 자본주의정치변호론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그릇된 논리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내정간섭책동을 리론적으로 합리화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의 민주화》를 표방하며 벌려놓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내정간섭책동을 리론적으로 변호하는 주되는 반동리론들중의 하나가 바로 현대자본주의 《경쟁적엘리트민주주의》론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는 말그대로 인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입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권 412페이지)

민주주의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로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어 실시하는 정치이다.

현대자본주의정치학계에서는 인민과 결부된 민주주의의 의미를 외곡정의하는 반동리론인 《경쟁적엘리트민주주의》를 《현대민주주의》의 본질적내용으로 내세운다.

자본주의어용정치학자들은 《현대의 민주주의는 경쟁성을 전제》로 하고있으며 《서로 경쟁하는 여러 정치세력들의 존재를 정통화하는 제도적장치》라고 주장한다.

현대자본주의《경쟁적엘리트민주주의》론자들은 지난 시기의 민주주의는 《다수자의 지배》로서 《다수 사람들의 소수 사람들에게 대한 권력》을 의미하였지만 현대의 민주주의에서는 통치자와 통치받는자가 구별되지 않으며 자본주의정객들에 의한 《경쟁적엘리트민주주의》가 주요특징으로 되고있다고 떠벌이고있다.

현대자본주의《경쟁적엘리트민주주의》란 한마디로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쟁하는 정치세력(정당)》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엘리트》들의 역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정치》를 의미한다고 말할수 있다.

현대자본주의《경쟁적엘리트민주주의》론은 서방식자본주의정치체제를 미화분식하고 제국주의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합리화하기 위한 반동정치리론이다.

현대자본주의《경쟁적엘리트민주주의》론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민주주의정치를 논하는데서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정치의 본질에 대한 외곡으로부터 출발한 궤변이라는 데 있다.

정치에 대한 《민주화》론의 제창자들의 인식은 프랑스정치학자 모리스 듀베르제의 정의에 기초하고있다.

그에 의하면 《통합》과 《투쟁》이라는 반대되는 개념이 동시에 존재하는것이 정치의 본질이라는것이다. 여기로부터 국가야말로 정치를 가장 잘 반영하고있으며 국가자체가 내부에 대립을 안고있는 한편 국제사회를 놓고보면 국가간에도 정치가 존재하는 한 대립을 포함하게 된다. 즉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국가는 자국내에서 대립을 안고있으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도 국가간의 대립이 존재하게 된다는것이다.

이러한 론의는 착취계급의 관점과 립장에서 정치의 본질을 일반화한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견해이다.

정치는 단순히 추상적인 《통합》과 《투쟁》만을 반영한 사회현상이 아니다.

정치의 본질은 그 주인인 사람을 중심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란 어느 사회에서나 고정불변한 사회적현상인것이 아니라 사회의 유형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게 규정된다.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이다.

우선 현대자본주의《경쟁적엘리트민주주의》론은 정치의 본질을 사회에 대한 그릇된 견해로 규정한 부당한 이론이다.

정치는 사회적기능이다. 정치가 사회적기능이라는것은 그것이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인 사회가 가지는 기능이라는것이다.

사회는 사람들의 단순한 산수적집합체가 아니다. 사람은 자기의 본성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적재부를 창조하면서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회속에서 살게 된다.

정치를 구체적인 사람을 떠난 그 어떤 추상적인 사회의 《통합》과 《투쟁》으로 묘사하는것은 사람의 본질을 자연적, 생물학적존재로 보고 사회정치현상들을 약육강식의 원리로 설명하는 부르조아적관점과 립장에서부터 흘러나온것이다.

또한 현대자본주의《경쟁적엘리트민주주의》론은 정치의 본질을 그 내용을 떠나 추상적으로 규정한 비과학적인 론의이다.

정치는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업이다.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한다는것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사회적활동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권한과 임무를 규정하여준다는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한다는것은 규정된 사회적권한과 임무에 따라 활동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회에서든지 정치란 구체적인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관할을 통하여 사회전체의 존재와 발전을 주도한다.

사회적기능으로서의 정치를 《상반되는 가치와 감정을 포함》한 《통합》과 《투쟁》으로 묘사하는것은 정치의 고유한 내용으로서의 사회전반에 대한 통일적인 조직지휘의 기능을 무시한 추상적인 론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현대자본주의《경쟁적엘리트민주주의》론은 정치의 본질을 계급성을 떠나 론의한 부당한 이론이다.

정치는 사람들의 활동이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이익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기능으로서의 정치가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한다는것은 결국 국가정권을 장악한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관할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바로 사람들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을 관할하고 조절통제하는 사업이라는데 정치의 본질이 있다.

현대자본주의《경쟁적엘리트민주주의》론에서는 《통합》과 《투쟁》에 대한 비과학적론리로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억압정치, 략탈정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정치를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기준》으로 내세우고 정치의 본질을 규정하고있다.

이처럼 정치의 본질에 대한 현대자본주의의 《경쟁적엘리트민주주의》론자들의 관점과 립장은 현대자본주의정치현실을 합리화하며 자본가계급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옹호하려는 반동적인 론리에 기초하고있다.

현대자본주의《경쟁적엘리트민주주의》론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서방식《민주주의》에서의

약육강식의 정권쟁탈을 민주주의로 묘사하는 파렴치한 부르쥬아독재변호론이라는데 있다.

현대자본주의《경쟁적엘리트민주주의》론에서는 민주주의란 《경쟁하는 여러 세력과 적대세력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치규범이 대중에 의하여 인식되고있는 장치》이며 그러한 경쟁을 통한 정치지도자의 선출과정을 통하여 해당 정치체제에 《정통성》이 부여된다고 주장하고있다.

현대자본주의《경쟁적엘리트민주주의》론에서는 현대의 《민주주의》란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정치세력들을 대표하는 《엘리트》들사이의 경쟁이 보장되며 선출된 《엘리트》들에 의하여 정치가 진행되는 정치체제라고 떠벌이고있다.

《현대민주주의=경쟁성=정통성》에 관한 도식으로 정치체제의 민주주의적성격을 규정하는 《경쟁적엘리트민주주의》론은 반동적착취계급의 관점과 립장에서 사회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를 외곡해설하는 비과학적인 리론이다.

현대자본주의대변인들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본받아야 할 표준으로 제시하는 서방의 《경쟁적엘리트민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반인민적인 부르쥬아독재이며 자본가계급만을 위한 《민주주의》이다.

현대자본주의《경쟁적엘리트민주주의》론에서 민주주의적정치체제의 본질을 《경쟁성》을 기본으로 규정한것은 반동적인 자본주의정치를 합리화하는 꾀변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진행되는 《정치적경쟁》이란 본질에 있어서 착취계급의 정당들과 반동정객들이 부르쥬아독재정치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벌리는 경쟁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다원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다당제를 실시하고있지만 집권 경쟁에 참가하는 정당들과 정치세력들은 모두 착취계급의 정치적요구와 리해관계만을 대변하며 진보적인 정당들과 정치집단들은 여기에서 완전히 배제되고있다.

《다당제민주주의》는 결코 진정한 민주주의로 될수 없으며 그것은 반동적인 자본주의사회계급관계의 필연적산물로서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부르쥬아독재를 은폐하기 위한 기만적인 정치방식이다.

착취계급의 정당들과 정객들사이의 《정치적경쟁》이란 본질에 있어서 망해가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심화되는 착취계급내부의 정치적대립과 모순을 반영한것으로서 자본가계급의 취약성과 추악한 본성이 정치무대를 통하여 표면화된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의 《정치적경쟁》은 착취계급내부에서 《민주주의》적으로 결말을 보게 된다.

《경쟁성》이란 독점자본에 의하여 좌우되는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정치현실을 《민주주의》로 합리화하려는 기만적허구이다.

현대자본주의《경쟁적엘리트민주주의》론에서 민주주의정치체제의 본질을 《엘리트》를 중심으로 규정한것은 현대자본주의의 독재정치를 합리화하는 꾀변이다.

원래 《엘리트》론은 착취사회의 사회관계에서 계급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사회에는 《뛰어난 지도능력》을 소유한 《엘리트》와 그에 순종할 의무만을 지닌 《수동적대중》사이의 관계만이 있다고 설교하는 제국주의파쇼독재변호론으로서 19세기말—20세기초에 발생하여 널리 류포된 부르쥬아사회학의 한 조류이다.

《엘리트》론은 사회의 권력구조는 《소수자의 지배》를 법칙으로 하여 구성된다는 꾀변으로 극소수 자본주의통치배들의 정치적집권과 파쇼적전횡을 변호한다.

《엘리트》론에서는 자본주의정객들을 《뛰어난 개인적자질과 심리적특성》을 지닌 《엘리트》로 묘사하면서 사회집단에서 《지도자의 필연적인 우위성》에 대하여 력설하였다.

특히 《엘리트》론자들은 민주주의가 한갓 《허위의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현대의 사회규모가 커지고 정치경제적기구가 다양화, 전문화, 복잡화된 조건에서 소수자의 지배만이 사회의 통일성과 지도의 신속성, 정밀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무력감과 정치적무관심성에 사로잡힌 《무개성적인 대중》을 이끌어낼수 있다고 제창하였다.

인민대중을 자본주의반동통치의 대상으로만 보는 이러한 극단한 파썸적론리로 하여 지난 시기 《엘리트》론은 자본주의정치학계에서도 부르쥔아《민주주의》와 배치되는 파시즘의 표현으로 인정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어용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하여 논한다고 하면서 지난 시기 자본주의정치학계에서도 상반되는 개념으로 여겨오던 《엘리트》와 《민주주의》를 련관시켜 현대자본주의정치를 합리화하고있다. 결국 현대자본주의에서 실시되는 《경쟁적엘리트민주주의》라는것은 지난 세기 전반기 도이쉴란드와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파썸독재국가들에서 실시된 독점자본가계급의 파썸독재정치와 다를바 없다.

현대자본주의《경쟁적엘리트민주주의》론은 이처럼 부르쥔아독재정치에 《민주주의》의 감투를 씌우려는 주관적의도로부터 실증주의적방법론에 기초하고 모순적인 개념들을 절충하여 반동적인 자본주의정치현실을 합리화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내돌리는 현대자본주의《경쟁적엘리트민주주의》론의 반동성을 옳바로 파악함으로써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